

광주시립미술관, 어떤 작품 수집했을까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어떤 작품을 수집했을까. 또 어떤 작가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을까. 소장품은 미술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얼굴'인데다, 작가들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년 시립미술관의 구입 작품은 지역 미술계에서 관심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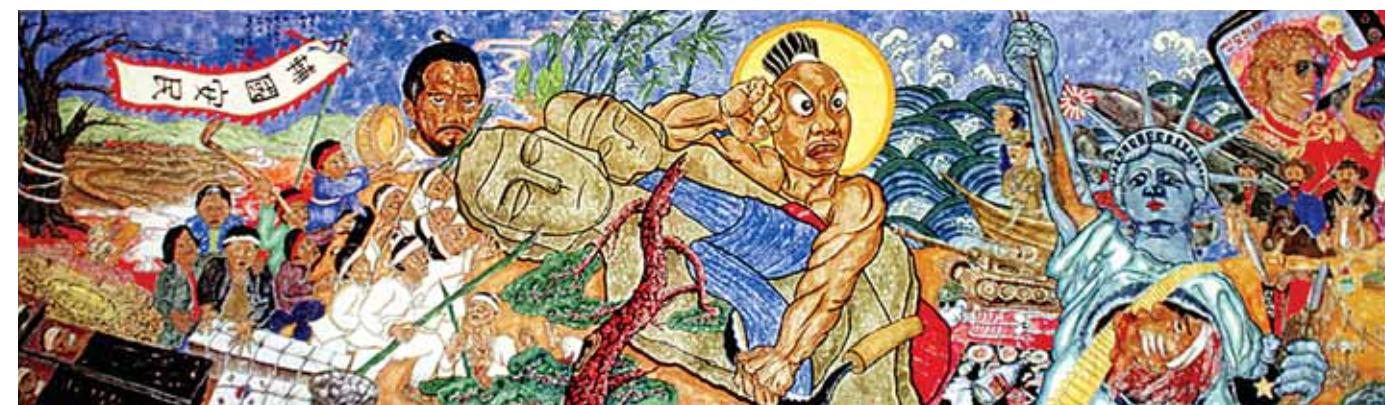
하지만 작품 구입비가 녀석하지 못하다보니 1점에 수십억원을 희가하는 유명 원로작가를 비롯, 한국 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원로 및 작가작품이나, 미술관컬렉션의 격을 높이는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에는 미흡하기만 하다.

◇작은 예산으로 '구색 갖추기'=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소장품 구입 현황'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은 올해 4억5000만원을 들여 19점의 작품을 구입했다.

우선, 영국 출신 yBa(young British artists)의 대표 작가 데미안 허스트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해' (100×75cm·2007년)라는 작품이 눈길을 끈다.

이 작품은 종이에 실크 프린트 방식으로 다이아몬드 가루가 뿌려진 것으로, 데미안 허스트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든 수족관에 실제 상어의 시체를 넣어놓거나 소를 토막내는 작품으로 미술계의 관심을 끌었다.

미술관 토털의 '민중의 싸움 -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작품(760×160cm)은 지난 1980년 이후 미술운동사에서 가장 먼저 제작된 걸개 그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지난 1983년 제작됐다 1985년 경찰에 빼앗긴 뒤 1994년 복원됐다. 고 영운 화백의 '죽하'라는 작품(40×40cm)은 한국 화단에 영향을 미친 앵포르밸 회화에 대한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미술사적 의미가 있다는 게



미술관 토털 작 '민중의 싸움 -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올해 4억5000만원 들여 19점 구입... 아트페어 45점은 별도

예산 적어 국내외 유명작가 작품 확보 미흡

데미안 허스트 '신의 사랑을 위해' 눈길... 흥성당 작품 가장 많아

시립미술관 설명이다. 이와 한국의 '동방의 별들', 이아남의 '변용된 항아리 도시나비', 강길원의 '재간', 박문종 '두암자리' 등도 구입했다. 작품 구입비로 600만~7500만원을 쓰는 수준이어서 1억원을 넘는 국내 화단의 대표작가의 작품은 엄두도 못낸다.

◇광주아트페어의 '큰 손'=시립미술관은 이와 별도로 지난 3년간 아트페어에서 50만~1억8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큰 손' 역할을 특별히 했다. 시립미술관은 올해 45점(지역 갤러리 작품 13점, 전국 갤러리 작품 21점, 해외 갤러리 출품작 11점)을 광주아트페어에서 '꼴고루' 구입했다. 지난해 12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아트페어 출품작 구입 예산은 5000만원(2011년)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이다.

지역 갤러리에서는 강동권씨의 '별이 내리 앉은 밤', 최정희씨의 '교감' 등을 구입했으며 김진화씨의 '달과 숲', 강운씨의 '공기와 꿈' 등은 광주를 찾은 타 지역 갤러리에서 구입했다. 50만~1050만원 이하의 작품들이 대부분인데다, 갤러리별로 배려한 작품구입도 눈에 띄어 일각에서는 '나눠 먹기', '갤러리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갤러리 중에는 메트로갤러리에서 4점을 사 가장 많이 구입했다.

◇역대 소장품 들여다보면=한국화의 경우 석석 김형수 화백의 작품이 83점으로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가장 많았고 도존 신영복 화백의 작품이 42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 허백련 화백의 작품은 24점, 육사 천경자 화백의 작품 20점, 황정 이돈홍 화백 8점 등이었다. 소치 허련의 작품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서양화의 경우 흥성당씨의 작품이 167점으로 가장 많았다. 고 전화황 화가의 작품도

고 김진화씨의 '달과 숲', 강운씨의 '공기와 꿈' 등은 광주를 찾은 타 지역 갤러리에서 구입했다. 50만~1050만원 이하의 작품들이 대부분인데다, 갤러리별로 배려한 작품구입도 눈에 띄어 일각에서는 '나눠 먹기', '갤러리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갤러리 중에는 메트로갤러리에서 4점을 사 가장 많이 구입했다.

◇역대 소장품 들여다보면=한국화의 경우 석석 김형수 화백의 작품이 83점으로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중 가장 많았고 도존 신영복 화백의 작품이 42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 허백련 화백의 작품은 24점, 육사 천경자 화백의 작품 20점, 황정 이돈홍 화백 8점 등이었다. 소치 허련의 작품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서양화의 경우 흥성당씨의 작품이 167점으로 가장 많았다. 고 전화황 화가의 작품도



데미안 허스트 작 '신의 사랑을 위해'

120점 보유하고 있으며 고 윤재우 77점, 고 강용운 45점, 고 오승윤 29점, 강연균 22점, 강운 17점 등이었다. 박불통씨의 작품도 59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장르(조각·설치·영상·공예·관화·사진·서예)에서는 강봉규씨의 작품이 78점으로 가장 많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춤사위 매력에 빠져 내일 조선대 무용과 발표회

제38회 조선대학교 무용과 발표회 및 춤업 발표회가 오는 6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한국무용은 김미숙 교수는 안무한 '염원의 빛'을 무대에 올린다. 현대무용 작품은 '고백합니까?'(안무 임지형 교수)다. 누구나 마음 속에 감추고 있는 이야깃들, 그 마음들을 활기찬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으로 김정인·이희진씨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박준희 교수는 안무한 발레 '가을·눈', '행복'에는 정민주·김규리·최하나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

졸업발표회로 꾸며지는 2부에서는



'별리'(정운선), '광대놀음'(배지원·장수지), '상사화'(주현선), '지금, 바로 여기'(황수빈·임효비), '소리 없는 아우성' 등이 공연된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클래식 향기

다문화M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 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다문화M오케스트라(단장 김유정) 창단 연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2010년 한국현악기 협회 도움을 받아 창단한 다문화M오케스트라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 뿐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는 단체다.

오케스트라는 모두 8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실기 지도를 하고 있다.

이번 창단공연에서는 김사도씨의 지휘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쇼스타코비치의

'재즈모음곡 월츠 2번', 르로이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을 들려준다.

한편 이날 음악회의 2부에서는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중 4악장 '환희의 송가'가 공연된다.

카를로 팔레스키가 지휘를 맡고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아버지합창단, 광주여성합창단, 꿈을 품은 메리아합창단, 레인보우합창단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번 음악회는 (사)두리사랑 상담치료연구소의 주최로 진행된다. 문의 062-351-0075.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도 영화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위손'

다시 보는 추억의 영화

'탑건' '가위손' '폭풍의 질주' 등 14~17일 광주극장

톱 크루즈의 끊임없는 매력이 살아 있는 '탑건', 조니 캠프와 위노라 리이더의 애정 한 사랑이 있는 깨지는 '가위손'.

광주 시네마테크가 추억의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다시 보는 클래식'을 마련했다. 14~17일까지 광주극장.

이번 상영작들은 토니 스콧, 리들리 스콧, 팀 버튼, 테伦스 맬릭 등 영화사에서 탄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감독들의 초기 대표작이다.

상영작은 올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줬던 할리우드 액션영화 감독 토니 스콧 감독의 대표작 '탑건'과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의 짧은 시절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폭풍의 질주'다.

또 그 외 형제 감독으로 SF 영화의 대명사 중 한편인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이리언', 영상철학자로 불리는 테伦스 맬릭 감독의 '천국의 나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유쾌한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완성한 팀버튼의 '가위손'

도 영화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티켓 가격은 동시 상영관의 추억을 살려 2편에 8000원이다.

시간표는 홈페이지(<http://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광주극장 T.062-224-5858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ow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김유정문학촌·소양댐 기차여행

남이섬은 "겨울연가", "우리결혼했어요" 등등 여러 방송 촬영지로 내외국인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며, 매년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유정생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문학 작가인 "김유정 선생"의 생가로 외양간, 디딜방앗간, 전시관 등으로 문화공간이다. 또 내륙의 바다로 불리우는 동양최대의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을 관광하게 되며, 춘천의 유명한 음식으로 알려진 춘천 먹거리등등 관광하게된다.

출발일 12월 24일 23시50분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70,000원

소인 55,000원

포함사항 왕복무궁화호 열차비, 현지 차량비, 남이섬입장료, 여행자보험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 15,000원 ● 아리랑 하우스 한정식 : 25,000원~

2012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를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전통한 우리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착한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